

부활 신호탄 쏘는 조선업... 현대·삼성중 잇따라 수주러시

현대 지주사 한국조선해양

초대형 컨테이너선 6척 건조계약
삼성 LNG운반선 올해 첫 수주

2020년 연말 잇따라 수주 '재깍'을 터뜨린 국내 조선 업계가 새해에도 수주러시를 이어간다.

'말형'인 현대중공업그룹에 이어 삼성중공업도 새해 첫 수주 소식을 전하며 힘차게 포문을 열었다. 지난해 연말 몰아치기 수주로 중국을 제치고 3년 연속 세계 1위를 지킨 한국 조선사들은 올해도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올리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아시아 소재 선사사와 1만 5000TEU급 LNG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 6척, 약 9000억원 규모의 선박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4척, 전남 영암의 현대삼호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1만 45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시운전 모습 /현대중공업

중공업에서 2척씩 건조돼 2023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이다. 특히 1회 총진만으로 아시아와 유럽 항로를 왕복 운항할 수 있는 대형 LNG연료탱크를 탑재하였으며, 친환경 연료사용과 최적의 연료공급 시스템을 통해 선박의 운영비용을 대폭 개선했다.

한국조선해양은 지금까지 전 세계에

서 가장 많은 총 50척의 LNG추진선을 수주한 바 있으며, 지난 2018년 7월과 지난해 9월 각각 세계 최초로 LNG추진 대형 유조선과 LNG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인도하는 등 이 분야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삼성중공업도 이날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계약을 체결하며 올해 첫 수주 소식을 전했다. 삼성중공업은 글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LNG운반선 /삼성중공업

로벌 해운사인 팬오션으로부터 17만4천㎡급 LNG운반선 1척을 수주했다. 계약 규모는 1993억이다. 이 선박은 2023년 4월까지 인도될 예정이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최신 멤브레인(Mark-III Flex)타입 화물창에 재액화 시스템이 장착돼 화물량 손실을 최소화했다.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와 선박평형수 처리장치(BWTS) 등을 탑재

해 친환경 규제에도 적합하다. 특히 삼성중공업의 스마트십 솔루션인 에스베슬(SVESSEL)이 장착된 최신형 스마트 선박이다.

선주사인 팬오션은 지난해 포르투갈 에너지 기업인 Galp와 체결한 약 1억 1500만달러 규모의 장기 대선계약(TC)에 최신 사양의 LNG운반선을 투입할 계획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올해 매우 이른 시기에 회사의 강점인 LNG운반선으로 수주 소식을 알려 기쁘다"며 "친환경, 고효율, 스마트십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올해 수주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조선해양은 올해 조선 부문 수주 목표를 149억불로 수립하는 등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아직 올해 수주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상향 조정된 목표치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하만, 익스플로어 행사 초청장 발송

三電, 전장사업 본격화... 이재용發 초격차 시동

이재용부회장 2016년 하만 인수 결정
오디오·전장 부문 기술력 소개 예정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전장 사업 확대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삼성전자 자회사 하만은 5일 '하만 익스플로어' 행사 초청장을 글로벌 미디어 등에 발송했다.

하만 익스플로어는 7일 (미국 현지시간)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행사로, 하만의 새로운 오디오 제품과 전장 부문 기술력을 소개할 예정이다.

하만은 2016년 삼성전자에 인수된 회사다. 오디오 부문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자율주행 등 전장 관련 매출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 당시 이재용 부회장이 전장 사업을 위해 하만 인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트 코로나'에서 글로벌 전장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 하만은 이번 행사로 본격적으로 전장 사업을 키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하만이 삼성전자와 본격적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는 하만 인수를 주도했던 이승욱 사업지원 TF 부사장을 전장사업팀장으로 선임하는 등 조직을 재정비했다. 하만과 삼성전자 전장사업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만도 보쉬 CEO 크리스찬 소벳카를 전장부문 부문장으로 새로 임명하며 쇄신을 꾀했다.

우선 하만은 디지털 콕핏 신형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콕핏은 차량에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으로, 하만과 삼성전자는 2018년

처음 선보인 이후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 공급하며 점유율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안도 내놔야 하는 상황이다. 당장 올들어 1분기 1900억원, 2분기 900억원 영업손실로 삼성전자 인수 후 첫 적자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3분기 1500억원 영업이익을 거두긴 했지만, 4분기 1000억원 영업이익이 예상돼 상반기 적자를 메우기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때문에 그동안 디지털 콕핏 외에는 전장 분야에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던 만큼, 제품 라인업을 대폭 확대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진다. 커넥티드카에 쓰이는 V2X 시스템이나 자율주행 솔루션 등이 거론된다.

/김재용 기자 juk@

현대로템, 260km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운행

청량리~신경주 구간 5편성 투입

현대로템이 제작한 국내 첫 동력분산식 고속열차가 본격적인 영업운행에 돌입한다.

현대로템은 5일 국내 첫 번째 동력분산식 고속열차를 중앙선(청량리~신경주) 구간에서 영업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동력분산식 고속열차는 총 130량(21편성)으로 현대로템은 지난 2016년에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로부터 시속 260km와 시속 320km 두 가지 타입의 고속열차를 약 4300억 원에 수주한 바 있다.

이번 개통에 투입되는 열차는 최고속도 260km의 동력분산식 고속열차로 총 5편성이 투입되며 남은 열차 편성과 시속 320km 열차는 순차적으로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국내 최초의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이름은 'KTX-이음'이다. '잇다'의 순우리말로 철길로 지역간을 잇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동력분산식 고속열차는 동력원이 각



현대로템이 제작한 'KTX-이음'.

각의 객차에 분산된 열차다. 동력집중식은 동력차가 열차 앞·뒤에 배치된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동력분산식 고속열차는 동력집중식에 비해 수송능력과 가·감속 성능이 뛰어나다"며 "특히 곡선선로가 많고 역 간 거리가 짧은 국내 철도환경에는 동력분산식 열차가 최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로템은 최근 5년간 세계 고속열차 시장에서 동력분산식 열차가 75%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KTX-이음 영업운행을 계기로 고속열차 수출도 추진할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삼성전자, 비스포크 디자인 美 시장 진출

비스포크 냉장고 3월 출시 예정

삼성전자 비스포크가 미국 시장에도 본격 진출한다.

삼성전자는 오는 11일(미국 현지시간) 개막하는 CES2021에 비스포크 냉장고와 그랑데 AI세탁기·건조기를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특히 비스포크 냉장고는 오는 3월 미국 시장에도 출시를 준비 중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CES 혁신상을 수상하고, 국제 디자인 공모전 IDEA 2020에서 은상과 특별상을 수상하는 등 차별화된 디자인과 혁신 기술로 인정받았다.

미국 시장에 출시되는 제품은 4도어, 2도어, 1도어 등 3가지 타입에 8가지 도

어 패널을 제공한다. 샴페인 스틸과 매트 블랙 스틸, 로즈 핑크 글래스 등 현지 시장에 맞는 색상을 적용했다.

국내에 출시된 적 없는 4도어 타입 비스포크 4D 플렉스도 내놓는다. 정수기 기능을 선호하는 현지 소비자들을 고려해 도어에 2가지 방식 정수기능을 적용한 '베버리지 센터'를 탑재했다. '오토필' 기능으로 냉장고에 물통을 넣으면 자동으로 채워주는 기능도 있다.

아울러 ▲ 2가지 종류의 얼음을 제공하는 '오토 듀얼 아이스메이커' ▲ 식재료에 따라 최적의 온도로 보관 가능한 5가지 모드가 제공되는 '플렉스존' 등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도 도입했다.

드럼 세탁기와 건조기 신제품도 2월



삼성전자 비스포크 냉장고 /삼성전자

미국 시장 판매를 앞두고 있다. AI 기술을 접목해 사용자 세탁 습관에 맞춰 최적의 세탁 건조를 해주는 제품으로, 그랑데 AI 솔루션이 대거 적용됐다.

삼성전자는 미국에 이어 하반기에는 캐나다에도 비스포크 냉장고와 세탁기, 건조기 판매를 시작하며 북미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재용 기자

LGD OLED 패널, 美 '아이세이프' 인증

블루라이트 비중 65인치 기준 34%

LG디스플레이 OLED 패널이 미국에서도 눈에 안전함을 인정받았다.

LG디스플레이는 미국 아이세이프에서 '아이세이프 인증'을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아이세이프 인증은 TUV 라인란드와 공동 개발한 것으로, 미국과 유럽의 안과 전문의 10여명도 함께 아이세이프 인증 표준 개발 및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눈의 피로도 증가나 수면 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블루라이트를 측정해 ▲전체 블루라이트 방출량 중 유해한 블루라이트의 비중 50% 이하 ▲

전체 가시광선 방출량 중 유해한 블루라이트 비중이 0.085% 이하 등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TV 패널 중에서는 LG디스플레이 OLED 패널이 처음으로 인증을 받았다. 유해한 블루라이트 비중이 65인치 기준 약 34%로 업계 최저 수준이었다. 동급 LCD TV 패널과 비교해서도 절반에 불과하다. 전체 가시광선 방출량 중 블루라이트 비중도 기준치 이하를 충족했다.

LG디스플레이는 오는 11일 개최되는 CES2021에서 편한 OLED로 안전과 건강까지 생각한 디스플레이 솔루션을 잇따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김재용 기자